

'메이드 인 광주' 캐스퍼 광주시민 관심 필요해요

누적 판매대수 11만7985대
광주 판매량 가장 저조
전체 1.8%...2117대에 불과
울산 등록대수와 3배 차이
7월부터 전기차 출시 반전 주목



GMGM이 현대차로부터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캐스퍼. <현대차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캐스퍼'가 '요람' 격인 광주에서 가장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GGM은 노·사·민·정 합의의 산물로, 부족한 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추진했는데, 현대로부터 위탁 생산 중인 캐스퍼가 지역에서 외면 받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13일 GGM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캐스퍼 판매량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에 불과했다. 지난해 캐스퍼의 국내 판매량은 4만5170대로, 이 가운데 광주시 등록 대수는 730대에 불과했다. 인구 천명당 등록 대수로 살펴보면 광주는 0.5대로, 광주시민 2000명 중 1명이 캐스퍼를 구매할 꼴이다.

울산광역시 인구 천명당 1.6대를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 가까이 차이가 났다.

누적 판매대수를 살펴봐도 광주는 하위권이었다. 지난 2021년 출시한 캐스퍼의 국내 누적 판매대수는 총 11만7985대다. 이 중 광주지역에서 캐스퍼 등록된 차량은 1.8%인 2117대에 불과했다. 광주시민 천명 당 1.49대 수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번째에 해당했다.

GGM 관계자가 "캐스퍼가 탄생한 고향 광주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아, 광주 시내 도로 곳곳을 캐스퍼가 누비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다.

GGM은 오는 7월 출시되는 캐스퍼 전기차를 분위기 반전을 꾀할 심산이다.

GGM은 전기차 생산 설비를 마무리하고 본격 캐스퍼 전기차 생산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해외 수출 물량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GGM은 경쟁력을 갖춘 캐스퍼 전기차로, 수출 실적을 쌓음과 동시에 내수 판매 증대로 캐스퍼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현재 국내내외를 막론하고 전기차 판매량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경형 전기차 모델이 많지 않은 데다, 최근 해외 수요 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모델 경쟁력을 통해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게 GGM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 둔화를 '케즘'(수요 정체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시일 내에 시장 확대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캐스퍼 전기차 모델은 내연기관 캐스퍼보다 긴 전장구동급 최대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캐스퍼 전기차는 GGM의 기술력을 더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 올릴 것으로 GGM은 기대하고 있다.

GGM 관계자는 "캐스퍼는 광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선봉장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사랑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1분기 경제 전년보다 악화

건설수주·소매판매·수출 감소
1020 젊은층 인구 유출도 심각

광주와 전남지역의 올 1분기 경제 지표가 전년보다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유출도 102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심각했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광주의 수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1.7% 감소했다.

광주의 지난해 1분기 광공업 생산지수와 서비스업 지수는 급속기공 생산 증가 및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건설수주(-69.8%), 소매판매(-3.3%), 수출(-3.3%)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은 선박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액은 7.4% 늘었지만, 수입액은 2.5% 감소했다.

전남지역에서는 토목공사 수주 증가 등의 요인으로 건설수주가 22.9%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3.0%), 서비스업생산(-0.8%), 소매판매(-5.2%)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지난해 2022-2023년 꾸준히 1%

대 증가세를 보여왔던 고용률 증가폭 역시 지난해 4분기(-0.5%p)와 올 1분기(-0.7%p)까지 2분기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경제 현황 악화 뿐만 아니라 인구 순유출 역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순유출된 인구는 5306명(광주 2709명·전남 25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부분의 순유출 인구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1020세대 젊은 층이었다.

광주시에서는 5개 자치구 중 북구만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았다. 북구는 552명 순유출됐지만, 광산구(-1701명), 서구(-915명), 남구(-392명), 동구(-253명) 등 4개 자치구에서는 인구가 순유출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1381명)가 광주시를 가장 많이 떠났고, 10대(-430명), 30대(-391명), 50대(-329명) 순으로 많았다.

전남지역에서는 22개 시·군 중에서 여수(-603명), 목포(-504명), 순천(-469명) 등 17개 지자체에서 인구가 순유출 됐고, 신안(284명), 장성(23명) 등 5개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순유입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남 역시 20대(-2343명)가 가장 많이 떠났고, 10대(-712명), 70대 이상(-28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10일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 본점 하나마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이현호 본부장과 구상봉 조합장 등 농협 임직원 20명을 비롯해 북부경찰서 건국지구대가 참여해 마트를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수칙 안내장을 배부하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농·축협 창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은 2021년(1699건, 307억원), 2022년(2265건, 283억원), 2023년(2483건, 161억원) 2024년에도 3월말 기준 427건에 22억원의 피해

예방 성과를 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소비자보호 우수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금융사기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오는 5월24일까지 '대포통장 제로'의 달을 지정, 운영한다.

이현호 본부장은 "최근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 포함된 택배발송, 경조사 안내 스미싱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악성앱이 설치되도록하여 피해를 겪어오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화금융사기는 사전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인 만큼 앞으로도 피해예방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내일부터 선착순 모집

청약탈락 동호 지정 계약 시작
청약통장·주택 소유 여부 무관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15일부터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청약접수를 통해 당첨됐으나, 부적격 대상으로 판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계약 자격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다.

소비자가 직접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는데, 광주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이자 프리미엄 아파트로 소비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 및 정당계약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선착순 계약 일정에 대한 문의가 계속 급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상품 특성상 실수요자 상당수가 청약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약통장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주 서구 금호

동 일대로, 총 39개동, 총 2772세대(일반분양 2364세대) 규모로 3개 블록으로 나뉜다.

풍양호수를 품은 단지는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된다.

오는 2026년 광주 지하철 2호선 역사 2곳이 도보로 이용 가능해지며, 단지 내부에는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가 적용된다.

이밖에 세대 당 약 2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하고, 현관 앞 세대창고를 제공한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154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봄철 미세먼지·자외선에 지친 건강 챙기세요

광주신세계 공기청정기·스킨 케어·영양제 등 제품 프로모션



봄을 맞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와 자외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공기청정기와 스킨 케어, 영양제 등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먼저 '발뮤다'에서는 오는 23일까지 '더 퓨어 공기청정기'를 20%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더 퓨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와 탈취 효과를 가진 필터가 들어가 있고 정류 날개가 상단 배기구를 통해 공기를 순환시킨다.

스킨케어 브랜드 '산타 마리아 노벨라'는 오는 31일까지 40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아쿠아 디 로즈'(250ml)를 증정한다. 아쿠아 디 로즈는 전통 증류방식으로 만들어져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탁월하다. 증정 프로모션은 한정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관장'은 면역력 강화를 위해 '홍삼튼튼'을 선보인다. 홍삼튼튼은 6년근 홍삼에 맥문동, 도라지, 생강, 배 등을 원료로 만들어져 다양한 용도로 인기가 높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팀장은 "광주신세계에서 미세먼지와 황사 대응에 필수적인 공기청정기, 스킨케어 제품 등을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오는 6월14일까지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600여개의 창업 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을 3개월간 인큐베이팅해 창업 아이템과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다.

단순 경쟁이 아닌 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한다.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

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참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득 22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보육료 지원 받아도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국세청 장려금 Q&A 안내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질문&답변)'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18세 이상도 지급 대상이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합의했다면 미리 정한 가구원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이때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 가액에 포함한다. 가령 1억원 상당의 전세를 살고 1억5000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소유한 경우 화물 트럭은 재산 기준(2억4000만원) 산정 때 제외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 판정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7.21 (-0.42)
↓ 코스닥	854.43 (-9.73)
↑ 금리(국고채 3년)	3.452 (+0.012)
↑ 환율(USD)	1368.20 (+0.10)